

이슈 브리핑

● 친환경차 / 탄소중립

- (EV) 프랑스, 저소득층 위한 전기차 리스 프로그램 운영
- (탄소배출) ICCT, 차량의 공인 탄소배출량과 실 배출량 간의 갭 증가 가능성 제기
- (탄소중립) BMW 그룹, 내부 평가 결과 '23년 EU 차량 탄소배출량 최저치 기록

● 자율주행 / SW / 미래모빌리티

- (SDV) Sony Honda Mobility, SW 바탕으로 HW 설계하는 'AFEELA'
- (ADAS) Tesla, 기존 차량의 Full Self Driving(FSD) 기능 신차로 이전 재개
- (자율주행) Geely, 자율주행용 저궤도 위성 11개 발사

● 글로벌 주요 부품사 동향

- (Continental) 인도 지사, 제어장치/센서 역량 강화로 올해 12% 성장 목표
- (Valeo) 모빌리티 기술 혁신을 위해 첸나이 그룹기술센터(GTC) 확장 추진
- (Infineon-Honda) 차세대 자동차 개발 협력을 위한 MOU 체결

친환경차 / 탄소중립

◆ (EV) 프랑스, 저소득층 위한 전기차 리스 프로그램 운영

- 프랑스는 저소득층(연간 개인 소득 €15,400 이하)을 위한 전기차 리스 프로그램을 운영 중으로 계약금 없이 월 최저 €40(약 57,630원)에 차량 운용 가능(Renault 'Twingo' 기준)
 - * 대상 차량은 가격 €47,000 미만 및 중량 2,400kg 이하여야 하며, 신청자는 직장과 거주지 간의 거리가 15km 이상 또는 연간 주행거리가 최소 8,000km이어야 함(12,000km 초과시 추가금 부과 가능)
 - ** 리스 기간은 최소 3년으로 정부가 차량 1대당 €13,000까지 계약금과 리스비를 지원하며(올해 총 지원대수 25,000대), '24년부터 소득이 €15,400 미만인 모든 프랑스 국민에게 확대 적용 예정
- Stellantis가 차량 2만대 주문을 既 확보해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예정이며 적용 가능 차종에는 Hyundai Kona, Nissan Leaf도 포함되나 기타 아시아산 전기차의 경우 新 전기차 보조금 제도와 마찬가지로 환경 점수 미달*로 인해 제외될 전망
 - * '24.1월 개시된 新 전기차 보조금 제도와 동일하게 60점 이상(80점 만점)의 환경 점수를 받은 차종만이 리스 적용이 가능한데, 아시아산 전기차는 생산-운송 과정에서 탄소를 다량 배출하여 기준 충족이 어려울 전망
 - ※ Automotive News Europe('24.1.31.) <https://europe.autonews.com/environmentemissions/how-france-helping-lower-income-households-drive-evs>

◆ (탄소배출) ICCT, 차량의 공인 탄소배출량과 실 배출량 간의 갭 증가 가능성 제기

- 비영리기관 국제청정교통위원회(ICCT)에 따르면 EU 내 내연기관 및 하이브리드 신차의 공인 탄소배출량(WLTP)과 실 배출량 간의 갭은 '18년 7.7%에서 '22년 14.1%로 증가함
 - * WLTP 기준 '22년 차량의 탄소 배출량은 '18년 대비 7.3% 감소했으나 ICCT에 따르면 실제로는 2.3% 감소
- 제조사별로는 '22년 기준 Opel이 21%로 갭이 가장 컸고 Hyundai가 20%로 그 뒤를 이었으며, Mercedes가 11%로 가장 적었음(9개사 평균 14%)
 - * 관련하여 EU는 '21년 신차에 연료 및 에너지의 실 소비량을 측정하는 장치(OBCFM)의 탑재를 의무화하였는데 데이터가 충분히 확보된 '30년경 상기 문제에 대한 대응책이 도입될 것으로 예상
 - ※ ICCT('24.1.30.) <https://theicct.org/publication/real-world-co2-emission-values-vehicles-europe-jan24/>

◆ (탄소중립) BMW 그룹, 내부 평가 결과 '23년 EU 차량 탄소배출량 최저치 기록

- BMW의 예비 계산에 따르면 '23년 당 그룹의 EU 내 차량 총 탄소배출량(신차 기준)은 전년(105g/km) 대비 2.8% 감소한 102.1g/km(WLTP)로 사상 최저치를 달성함
- 탄소배출 저감에는 당 그룹의 전동화 전략이 주효하였는데 '23년 총 376,183대의 BEV를 판매하며 전년 대비 전체 시장(30%*)보다 높은 판매 증가율(74.4%)을 기록함
 - *뱅크오브아메리카(BoA) 조사 기준
 - ※ BMW Group('24.1.30.) <https://www.press.bmwgroup.com/global/article/detail/T0439276EN/bmw-group-continues-to-reduce-eu-co2-fleet-wide-emissions-in-2023?language=en>

◆ (SDV) Sony Honda Mobility, SW 바탕으로 HW 설계하는 'AFEELA'

- 일반적인 자동차 개발*과는 다르게, 'AFEELA'는 SW 업체가 Sony Honda Mobility와 함께 Tier 0.5라고 할 수 있는 위치에서 전체적인 사양을 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Tier 1 회사가 HW를 설계하는 구조**로 개발 중

* 일반적인 개발에서는 HW를 담당하는 Tier 1이 반도체 등 HW를 선택하면, SW 업체가 Tier 2 또는 3의 위치에서 HW 제약에 맞춰 개발을 진행. 이러한 구조에서는 Tier 1이 비용 관점에서 최소한의 성능을 갖춘 반도체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 SW 기능 추가 등에 어려움이 존재

** Continental의 자회사 Elektrobit(SW 기업)가 운전석 아키텍처와 SW-HW 사양을 수립하고 소스코드 개발. 이를 바탕으로 Alps Alpine(HW 기업)이 대형 디스플레이를 배치한 조종석 및 ECU 등 하드웨어 부품 담당

- Nikkei Mobility는 이러한 HW, SW 기업 간의 역할 반전에 주목하면서 향후 공급망 변모의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

※ Nikkei Mobility('24.2.5.) <https://www.nikkei.com/prime/mobility/article/DGXZQOUC2313U0T20C24A1000000>

◆ (ADAS) Tesla, 기존 차량의 Full Self Driving(FSD) 기능 신차로 이전 재개

- '16년부터 FSD에 대해 인간 개입 없는 자율주행 기능을 약속해 왔지만 진전이 없자 소비자는 신차에 FSD 이전을 요청했으며, '23.Q3에 한시적으로 FSD를 이전할 수 있게 하고, 최근 '24.3.31까지 FSD 기능 이전을 재개함

* Elon Musk는 처음 기능 이전을 허용할때 일회성 조치임을 강조하였고, Electrek은 이러한 조치가 소비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해당 기간 수요를 늘리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자율주행 약속 이행시까지 기능 이전을 계속 해야한다고 보도

- 기존 차량에 FSD 및/또는 무료 SuperCharging(급속충전)이 적용되는 경우, 기존 차를 보상판매하거나 기존 차의 해당 기능 포기 계약을 하면, 새 차에 기능을 적용 할 수 있음

* 현재 FSD 기능 구매 가격은 최대 1.5만 달러이고, 기능 이전은 'Cybertruck' 외 모든 신차에서 적용됨

※ Electrek('24.2.5.) <https://electrek.co/2024/02/05/tesla-brings-back-fsd-free-supercharging-transfer-despite-what-elon-said/>

◆ (자율주행) Geely, 자율주행용 저궤도 위성 11개 발사

- 동사는 '25년까지 인공위성 72개를 궤도에 올리고, 향후 240개 보유 계획을 밝힘('24.2.3.)

* 첫 발사는 '22.6월에 이루어졌으며, 이번이 두 번째 발사임

* 중국은 '14년부터 우주산업에 민간 투자를 허용했으며, 중국 언론에 따르면 상업 위성 포함 인공위성 400개 이상 보유

- 자율주행차의 고정밀 위치 추적을 지원하고, 자사 네트워크를 통해 소비 가전과 연결 같은 다른 상업적 기능도 제공할 예정

* 위성은 AI 원격 감지 기능으로 1~5m의 고해상도 원격 감지 이미지 생성

※ Reuters('24.2.1.) <https://www.reuters.com/technology/space/chinas-geely-launches-11-low-orbit-satellites-autonomous-cars-2024-02-03/>

◆ (Continental) 인도 지사, 제어장치/센서 역량 강화로 올해 12% 성장 목표

- Continental 인도 지사는 표준 6-에어백 차량 대중화에 따른 에어백 컨트롤러 수요 증가에 대비해 제품 제조역량을 강화하고, 벵갈루루, 마네사르 공장 중심으로 전년 대비 12% 성장 목표 제시

* 에어백 제어장치(ACU) 200만개→'24년 350만개, 텔레매틱스 제어장치(TCU) 100만개 미만 새로운 생산라인 →최종 200만개, 타이어 압력 모니터링 시스템(TPMS) 센서 400만개→'25년 말 1,000만개로 확장 생산 계획

* Continental 인도 지사는 CY23 전 년 대비 시장 성장률의 두 배에 달하는 18~20% 성장하였으며, CY24 승용차 시장 성장률 5~7%로 둔화 예상되지만, 인도 지사장은 동사 인도 지사 성장률 10~12%로 전망

- 또한, 동사는 차량 연결성 증가에 대비하여 향후 2~3년 내 출시를 목표로 차세대 차량용 고성능 컴퓨터(HPC)를 개발 중이며, ADAS 기능이 의무화되어 관련 제품 매출 성장 예상

※ AUTOCAR Professional('24.2.2.) <https://www.autocarpro.in/news-national/continental-india-targets-12-growth-in-cy-2024-expand-acu-tcu-and-tpms-capacity-118972>

◆ (Valeo) 모빌리티 기술 혁신을 위해 첸나이 그룹기술센터(GTC) 확장 추진

- Valeo는 인도 첸나이 그룹 기술 센터(GTC)를 확장하고, 1,000개 이상의 워크스테이션을 갖춘 인프라를 바탕으로 HIL/SIL* 검증 및 사이버 보안 테스트를 운영하며, 소프트웨어와 시스템 인력 통합·인재유치·협업 등 추진 계획

* Hardware-in-the-Loop: 하드웨어 기능 시뮬레이션, Software-in-the-Loop: 소프트웨어 기능 시뮬레이션

- GTC는 대부분 제품 및 플랫폼 핵심인 운전자 지원 시스템, 도메인 및 구역 컨트롤러, 변압 시스템, 열관리 솔루션, 스마트 조명 기술 등에 기여함

* 동사는 AI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사이언스, 신뢰성, 디지털화, 컴퓨터 비전, 클라우드 컴퓨팅, 디지털 트윈 및 시뮬레이션, 칩셋 설계, 사이버 보안, 기능 안전 및 SDV 핵심 기술 분야 성장을 도모할 것임을 언급

※ ET Auto('24.1.31.) <https://auto.economictimes.indiatimes.com/news/auto-technology/valeo-expands-group-technical-centre-in-chennai/107294936>

◆ (Infineon-Honda) 차세대 자동차 개발 협력을 위한 MOU 체결

- 반도체 기업 Infineon은 일본 완성차업체 Honda와 자율주행-전기차 등 차세대 자동차 분야 협력을 위해 양해각서(MOU) 체결

- 이번 협력은 안정적인 반도체 조달을 목표로 하며, 전력 반도체, ADAS, E/E 아키텍처 등의 분야에 대해 개발 단계부터 협력을 통해 시장 출시를 앞당길 예정

※ Nikkei('24.2.1.) <https://www.nikkei.com/article/DGXZQOUC019AQ0R00C24A2000000/>

DigTimes Asia('24.2.2.) <https://www.digitimes.com/news/a20240202M204/infineon-honda-strategic-partnership-automotive-semiconductor-solutions.html>